

하나 글로벌 데일리



글로벌 지표

미국 / 유럽 증시 / 국제 유가				
지수	증가	1D(%)	1W(%)	YTD(%)
Dow	34,738.1	(1.4)	(1.0)	(4.4)
S&P500	4,418.6	(1.9)	(1.8)	(7.3)
NASDAQ	13,791.2	(2.8)	(2.2)	(11.9)
STOXX50	4,155.2	(1.0)	1.7	(3.3)
VIX	27.4	14.4	17.8	58.9
WTI(원물)	93.1	3.6	0.9	23.8
BRENT(원물)	97.6	3.9	2.3	26.0
금	1,858.8	1.8	2.8	1.6

전일 아시아 / 산황국 증시				
지수	증가	1D(%)	1W(%)	YTD(%)
KOSPI	2,747.7	(0.9)	(0.1)	(7.7)
KOSDAQ	877.4	(2.0)	(2.8)	(15.1)
일본(Nikkei)	27,696.1	0.0	0.9	(3.8)
중국(상해종합)	3,462.9	(0.7)	3.0	(4.9)
홍콩(H-Share)	8,784.4	(0.1)	2.3	6.7
홍콩(항셍)	24,906.7	(0.1)	1.4	6.5
대만(TAIEX)	18,310.9	(0.2)	3.6	0.5
인도(Sensex)	58,152.9	(1.3)	(0.8)	(0.2)
인니(자카르타)	6,815.6	(0.1)	1.3	3.6
베트남(호치민)	1,501.7	(0.3)	1.5	0.2
러시아(RTS)	1,470.1	(5.0)	2.4	(7.9)
브라질(Bovespa)	113,572.4	0.2	1.2	8.4

Global Event Calendar (현지시간 기준)

14일 (월)

- LG에너지솔루션 MSCI 조기편입일
- 공식 대선 선거운동 시작일

15일 (화)

- 미 1월 PPI
- 유 4Q GDP

16일 (수)

- 한 1월 실업률
- 미 1월 광공업생산, 설비가동률

글로벌 증시

Global 증시 마감 사항

▶ 미국/유럽 증시

- 금요일 미국증시는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에 약세 마감
- 엑소모빌(+2.52%), 록히드마틴(+2.79%) 등 에너지/방산주는 강세 마감한 반면 AMD(-10.01%), 엔비디아(-7.26%) 등 반도체 관련주는 약세 시현
- 한편 유가는 4.5% 상승한 93.9불을 기록한 가운데 업종별로는 에너지, 유틸리티를 제외한 전 업종 약세 마감

▶ 중국 증시

- 중국 본토증시는 예상치를 상회한 미국 1월 소비자물가와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움직임으로 인해 하락 마감
- 업종별로는 금융, 석탄을 제외한 대부분 약세 흐름
- 홍콩증시는 금리인상 우려 확대가 악재로 작용하여 하락 마감

Global Issue & News

▶ 백악관, 러시아의 올림픽 기간 내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 제기

- 미국 백악관은 러시아가 올림픽 기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 내 미국인을 철수 권고. 러시아의 침공이 공중 폭격과 미사일 공격으로 시작될 가능성 존재한다고 언급
- 미국과 러시아 대통령은 62분 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통화했으나 큰 진전은 이뤄지지 못함
- 한편 유가는 IEA의 원유 공급 부족 전망에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되며 3%대 급등

▶ 헝가리, EU 탈퇴 가능성

-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EU가 헝가리에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면 탈퇴할 가능성 시사
- EU 및 인권 단체들은 오르반 총리가 민주주의와 법치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해온 바 있음. 이에 오르반 총리는 EU가 헝가리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
- 한편 헝가리는 4/3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시작. 선거 방향에 따라 헝가리 EU 탈퇴 여부 결정될 가능성

▶ 중국 최대 파운드리 SMC, 생산능력 확장

- SMC는 올해 반도체 생산 능력을 늘리기 위해 50억 달러를 신규 투자하겠다고 발표
- SMC는 50억 달러의 신규 투자를 통해 월간 반도체 생산 능력이 8인치 웨이퍼(wafer) 기준 현재 13만 개 수준에서 15만 개 수준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전망
- 시장 분석가들은 SMC의 손익이 대폭 증가한 데 대해 5G이동통신용 스마트폰, 스마트 차량, 가전제품의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

▶ 테슬라, 베이징 디자인센터 연내 착공

- 테슬라가 올해 중국 베이징에서 디자인센터를 착공할 것이라고 제일경제가 보도
- 베이징 디자인센터는 작년 10월 완공한 상하이 연구개발센터에 이은 테슬라의 중국 내 대규모 투자
- 테슬라가 판매하는 전기차 모델은 47개이지만, 중국 현지에서 디자인한 전기차가 출시되면 제품군이 다양화되고 생산 원가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

글로벌 업종/종목 퍼포먼스

미국 / 중국 / 유로존 (GICS Lv.1)				
가별	산업별	증가	1D(%)	1W(%)
미국	에너지	274.2	2.8	1.8
	소재	377.6	(1.5)	1.2
	산업재	381.2	(1.6)	(1.0)
	경기소비재	590.7	(2.9)	(2.1)
	필수소비재	299.0	(0.3)	(0.9)
	헬스케어	420.4	(1.3)	(1.3)
	금융	216.0	(1.7)	(0.4)
	IT	616.1	(3.1)	(2.6)
	커뮤니케이션	77.3	(2.5)	(3.6)
	유틸리티	196.7	(0.0)	(2.4)
중국	부동산	1,365.4	(2.8)	(1.4)
	에너지	440.6	1.2	7.6
	소재	1,180.7	(0.3)	7.2
	산업재	139.6	(1.3)	(0.3)
	경기소비재	242.9	(1.3)	1.9
	필수소비재	1,820.6	(0.5)	1.3
	헬스케어	219.0	(3.7)	(9.1)
	금융	474.8	1.4	4.8
	IT	837.3	(2.1)	(1.5)
	커뮤니케이션	140.8	(1.7)	0.2
유로존	유틸리티	757.5	(0.4)	3.6
	부동산	1,143.1	1.6	5.5
	에너지	139.9	1.3	1.9
	소재	354.5	(0.9)	2.1
	산업재	321.5	(1.1)	2.2
	경기소비재	215.5	(1.2)	0.5
	필수소비재	297.2	1.2	1.4
	헬스케어	240.8	(1.4)	0.8
	금융	71.3	(0.3)	3.1
	IT	164.9	(1.7)	0.6

미국 / 중국 전일 주가 상승폭 상위 16 종목

지수별	타커	종목명	증가	1D(%)	1W(%)	1M(%)
S&P500	NWL	뉴웰 브랜즈	24.4	11.1	14.3	5.7
	HFC	홀리프린터	38.6	7.1	5.7	10.5
	BKR	베리커 유즈	29.1	6.2	9.6	8.1
	OXY	옥시덴탈 페트로리움	43.0	5.7	5.3	23.9
	NOV	NOV	17.3	5.5	6.4	8.0
	NEM	뉴몬트	63.9	5.5	4.8	4.8
	WU	웨스턴유니온	19.4	5.1	7.1	4.9
	NOC	노스롭 그루만	399.3	4.5	8.0	(0.3)
	PSX	필립스 66	93.2	4.2	4.9	8.2
	HES	헤스	96.2	4.1	0.6	6.8
	CF	CF 인더스트리스	76.7	4.0	2.2	11.0
	FANG	다이나몬드백 에너지	135.6	3.9	2.7	9.0
	PXD	파이어니어 내추럴	230.9	3.9	1.3	13.2
	FTI	테크넬FCM	6.9	3.8	1.2	0.0
	MRO	마라톤오일	22.2	3.7	3.3	19.0
	SLB	슬러버거	40.6	3.7	5.5	11.3
CSB00	000656	진커 지산집단	5.1	10.0	12.9	2.8
	601628	중국생명보험	31.6	7.3	14.7	5.0
	601155	신정 공고 집단	36.3	5.3	9.2	10.9
	601857	페트로차이나	5.8	5.1	15.5	8.8
	600809	산서 성화원 편주양조	282.6	4.7	2.7	(0.9)
	000596	안후이쿠징주류	238.3	4.5	13.7	6.9
	601838	청두 운행	15.1	4.4	7.7	8.0
	000786	베이징 신 건재	35.9	4.1	11.0	(1.8)
	601601	중국 타이팡양 보험	28.8	3.4	9.8	3.4
	601336	신화 인수보험	40.8	3.3	8.9	2.6
	000651	거리 전기기기	39.9	3.0	5.5	1.0
	002271	베이징 동방 위풍	52.2	2.7	5.6	6.7
	600989	Ningxia Baofeng	17.8	2.7	11.9	4.5
	601318	중국 평안보험 집단	55.6	2.6	11.2	5.9
	601668	중국 건축집단	5.6	2.6	7.7	6.5
	601009	난징은행	10.3	2.5	5.3	6.2

미국 전일 신고가 리스트

타커	종목명	신고가(USD)
OXY	옥시덴탈페트로리움	43.2
RE	에베레스트리 그룹	296.9
VLO	발레로 에너지	93.8
CF	CF 인더스트리스	77.2
MRO	마라톤오일	22.3
EXPE	익스피디아	210.5
MAR	마리엇	177.2
MPC	인태셔널/매달렌	81.4
EOG	매리엇 에너지	116.9
MET	메트라이프	72.6

중국 전일 신고가 리스트

타커	종목명	신고가(CNY)
601800	중국 교통 건설	11.3
601111	중국국방항공	11.4
601668	중국 건축집단	5.8
600900	중국 차량 전력	23.9
601838	청두 은행	15.3

ETF 퍼포먼스

업종별 ETF	종목명	증가	1D	1W	1M
필수소비재(XLP)	필수소비재(XLP)	75.3	-0.4	-2.1	-2.0
	자유소비재(XLY)	180.5	-2.9	0.7	-9.0
	금융(XLF)	40.1	-1.4	1.7	-2.2
	IT(XLK)	154.9	-3.1	-2.6	-6.7
	헬스케어(XLV)	130.3	-1.4	-1.9	-4.0
	원자재(XLB)	84.0	-1.5	-0.6	-5.0
	에너지(XLE)	70.4	2.9	3.8	15.1
	유틸리티(XLU)	67.0	0.1	-2.9	-4.2
	통신(XLC)	69.3	-2.2	-2.4	-8.8
	산업재(XLI)	99.4	-1.5	-1.8	-5.6
반도체(SMHI)	반도체(SMHI)	265.3	-5.1	-2.1	-10.8
	은행(XBE)	57.3	-0.6	3.4	-3.4

스타일, 자산별 ETF

종목명	증가	1D	1W	1M
성장주(VUG)	279.5	-3.1	-1.5	-7.9
가치주(VTV)	145.5	-1.0	-0.7	-2.6
선진국(EFA)	75.7	-1.5	-0.3	-3.0
신중국(EMCG)	59.4	-1.5	0.4	-0.6
재권중합(ACG)	110.1	0.7	-1.1	-2.0
국채(COVT)	25.6	0.7	-1.0	-1.7
장기국채(TLT)	138.3	1.5	-2.0	-3.1
물가채(TIP)	124.1	0.9	-0.5	-1.9
IG회사채(LQD)	124.8	0.7	-1.5	-3.7
HY회사채(HYG)	82.7	-0.3	-1.7	-3.8
리츠(MNQ)	103.3	-0.9	-2.6	-6.4
한국(EWY)	72.9	-1.0	1.3	-4.5

테마별 ETF

종목명	증가	1D	1W	1M
친환경(ICLN)	18.0	-2.6	-1.1	-8.2
혁신산업(ARKK)	71.9	-2.5	4.1	-15.1
우주항공(UFO)	24.4	-1.5	0.6	-6.7
클라우드(SKYY)	90.8	-4.0	1.3	-7.8
온라인소매(ONLN)	49.4	-3.3	4.5	-8.5
ESG(ESGU)	99.1	-2.0	-1.2	-5.9
생명공학(BB)	130.1	-1.3	-0.1	-8.5
엔터프라이즈(PF)	49.2	-1.9	5.4	2.1
핀테크(ARKF)	31.7	-2.4	7.4	-12.1
전기차(IDRV)	48.7	-3.1	-2.0	-10.0
AI, 로봇(ARKQ)	65.0	-1.7	3.3	-10.0
농업(MOO)	96.7	-0.2	3.5	3.0

미국(선진국)

테크 / 플랫폼

▶ [반도체 산업] 우크라이나 간장 고조 및 인플레이션으로 반도체 관련 주 동향 하락세

-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긴장 고조로 반도체 주식은 큰 폭으로 하락
- 칩 제조업체는 팬데믹 기간 수요 증가에 힘입어 일반적으로 지난 달에 호실적 보고
- 그러나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 환경 영향을 덜 받는 주식을 찾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가 침공당할 경우 칩 제조업자가 반도체급 네오를 포함한 주요 부품에 대한 공급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도
- 가장 큰 손실을 입은 AMD는 금요일에 10% 하락, 이는 지난해 11월 고점 대비 약 30% 하락한 수치
- 네트워킹 및 스트리밍 칩을 제조하는 빠르게 성장하는 Marvell은 금요일 7% 이상 하락
- 엔비디아도 금요일 7% 이상 하락했으며 작년 11월 고점에서는 30% 하락
- 퀄컴은 금요일 5% 이상 하락했으며 YTD 11% 이상 하락, 인텔은 2% 이상 하락했고 브로드컴은 3% 이상 하락

▶ 시스코 시스템즈(CSCO.US): 빅데이터 분석 업체 스피링크(Splunk)에 200억 달러 규모 인수 제안

- 시스코 시스템즈가 빅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업체 스피링크에 200억달러 규모 인수 제안
- 인수 제안은 최근 이뤄진 것이고, 양사는 현재 적극적인 협상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보도
- 시스코가 스피링크를 인수할 경우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 거래가 될 것. 2005년 70억달러에 인수한 사이언티픽 애틀란타, 2021년 50억달러에 사들인 아카시아 커뮤니케이션스를 뛰어 넘는 거래 규모
- 2003년 설립된 스피링크는 기업들이 IT 및 보안 환경 운영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모니터링 및 분석 소프트웨어 제공 업체
- 다만, 최근 기대에 못미치는 실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해 11월 CEO 더그 머릿트가 물러났고 후임 CEO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시스코는 네트워크 하드웨어로 성장해왔지만 척 로빈슨이 CEO 로 온 이후 소프트웨어 회사로 변신하기위해가 가속화 중

소비재 / 헬스케어 / 금융

▶ 켈로그(K.US): 두자릿수(%) 원가 상승, 가격 인상

- 지수는 물가로 인해 투입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상쇄하기 위해 상품 가격을 인상시키면서도 생산성을 개선할 것이라고 언급
- 2022년 들어서도 두자리 수(%)의 원가 상승이 목격
- 당사의 가격 정책 성과는 매우 견고했고, 당사는 원가 상승분을 부담, 당사는 상품 가격을 크게 올리고 싶지 않으나, 시장 전반에서 상품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 설명
- 가격 탄력성이 역사적 저점에 있으나, 켈로그는 가격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취할 계획임을 분석

산업재 / 에너지 / 통신

▶ 보잉(BA.US) 제주항공, 737 기반 화물기 도입을 통한 항공 화물 운송 사업 본격 진출

- 제주항공이 13일 화물 전용기 도입을 위한 리스사와의 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항공 화물기 운송 사업에 나선다고 밝힘
- 제주항공이 도입 예정인 화물 전용기는 보잉의 B737-800CF로 제주항공이 현재 여객기로 운영하고 있는 항공기와 같은 기종. 이에 따라 비용을 절감하고 편대 운영 효율성 개선 기대
- 제주항공은 이달 중순부터 화물기 개조 작업에 돌입해 6월중 개조 작업을 완료할 계획
- 국토부가 항공시장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우리나라 항공화물 시장은 기존 두 항공사(69%)와 외국 항공사(29.8%)가 98.8%의 점유율을 기록
- 제주항공의 점유율은 0.1%에 그쳤으나 2020년 10월 여객기 내 착석을 활용한 화물 사업을 시작으로 점차 화물 운송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장할 계획

▶ [항공 산업] 파일럿 세명 중 한명은 여전이 쉬는 중

- COOSE Recruitment와 FlightGlobal이 전 세계 1,700여명의 파일럿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여전이 전체 파일럿의 약 3분의 1이 코로나로 인해 운항에 투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COOSE Recruitment와 FlightGlobal은 "많은 파일럿들에게 상황은 여전이 답답하다. 고용 불안이 만연해 있고, 자신감도 낮다"고 언급
- 전체의 62%의 파일럿이 운항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 작년 같은 기간 43% 대비 상승. 실제 상태인 파일럿 비중은 30%에서 20%로 하락함. 이중 휴직자는 6%에 해당
- 아태지역 실업률은 23%에서 25%로 상승하였으며 전체의 53%만이 운항에 참여 중
- 북미 파일럿들이 직업 안정성에 대해 가장 많은 우려를 표함. 북미 파일럿의 40%가 항공업의 미래 전망에 대해 비관적. 이는 전체 기준 24% 대비 높은 수준
- 응답자의 56%가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위해 항공 업계를 떠날 것을 고려 중이라 말했으며, 항공업 커리어를 젊은 세대들에게 추천하지 않을 것이라 대답한 응답자 비중은 팬데믹 이전 29%에서 55%로 크게 상승

▶ 블랙스톤(BX.US): 리소스리츠 매입 계획

- 블랙스톤 리츠는 12,600 멀티패밀리와 42개의 가든형 아파트 포트폴리오 매입 계획중. 이 달은 교외 아파트 커뮤니티 소유주들에게 3.7십억달러 가치 예상
- 이번 계약은 금년 2분기에 마무리 예상

중국

IT / 플랫폼

▶ 징둥(JD.US): 모건스탠리 알리바바, 징둥 지분 축소

- 모건스탠리 4Q21 실적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알리바바, 징둥 지분 큰폭으로 축소, 니오 지분확대
- 알리바바, 징둥 지분 각각 22%, 39% 축소해 총 10.9억달러, 4.7억달러 보유
- 니오 지분 378% 확대해 총 2.4억달러 보유

▶ SMIC(00981.HK): 4Q21 실적 발표

- SMIC의 4Q21 매출액은 15.8억USD(YoY +61.1%, QoQ +11.6%)으로 가이던스(QoQ +11%~+13%) 중하단에 부합하였으며 역대 분기 최고치 기록, 4Q21 CPM은 35.0%로 전년 동기(18.0%)와 전 분기(33.1%) 대비 각 17%p, 1.9%p 개선되었으며 가이던스(33%~35%) 상단에 부합
- 4Q21 실적이 YoY 큰 폭으로 성장한 이유는 웨이퍼 판매량 증가에 따른 매출액 증가, ASP 상승, 제품 믹스 개선, 계열사와 금융자산의 투자 수익이 증가했기 때문
- SMIC는 1Q22 매출액이 QoQ +15%~+17%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1Q22 예상 CPM은 36%~38%로 제시

소비재 / 헬스케어

▶ 온싹식품(300498.CH): 돼지고기 매출액 QoQ 증가세

- 1월 달고기 매출액 26.35억위안으로 YoY -9%, 달고기 평균 판매가 14위안/kg로 YoY -4%
- 돼지고기 매출액 24.7억위안으로 YoY -39%, QoQ +8%, 돼지고기 평균 판매가 14위안/kg로 YoY -58%, QoQ -13%

▶ 항서제약(600276.CH): 신약개발 현황

- Zuplenz 제네릭 약물인 Ondansetron 출시. Zuplenz는 5-HT3 길항제로 MonoSolRxLLC이 2010년 미국에서 출시한 진통제. 2020년 해당약물의 글로벌 매출액은 146만달러, 항서제약 연구개발비는 1802만위안
- Ofirmev 제네릭 약물인 Paracetamol 출시. Ofirmev는 Cadence이 2010년 미국에서 출시한 진통,해열제. 이에 대한 중국 내 제네릭 약물은 항서제약이 처음. 2020년 해당 약물의 글로벌 매출액은 2.9억위안, 항서제약 연구개발비는 1370만위안

▶ 마오타이(600519.CH): 준절전보다 확연히 안정된 실제 판매가

- 마오타이 임인년주 권장소비자가는 안병당 2499위안, 연초 실제 판매가는 6000위안까지 치솟았다가 현재 4580위안까지 안정된 상태
- 임인년주는 한때 최고 8000위안까지 상승한 바 있음. 이에 비하면 현재 가격은 큰폭으로 낮아진 상황
- 그외, 53도 진품과 53도 1935 판매가 또한 준절전보다 낮아진 것으로 파악

투자유망종목

투자유망종목 Weekly (2/9~2/15)

종목	코드	시총(조)	편입일	1D(%)	누적(%)
애플	AAPL.US	3,287	1/26	(2.02)	4.34
마이크로소프트	MSFT.US	2,642	2/9	(2.43)	(1.96)
월마트	WMT.US	448	1/26	(0.55)	(3.47)
BOA	BAC.US	462	1/12	(2.30)	(2.06)
ASML	ASML.US	305	1/26	(4.36)	(8.61)
캐티파터	CAT.US	130	1/5	(0.90)	(2.78)
발레로 에너지	VLO.US	45	1/5	2.35	19.26
완커	000002.CH	45	1/12	1.58	(5.02)
아이얼스마트홈	600690.CH	45	1/5	(0.97)	(9.69)
강봉리튬	1772.HK	34	1/26	(0.83)	(4.71)

추천 ETF

분류	종목코드(ETF명)	기초자산	투자포인트
주식형	XLK (Technology Select Sector SPDR Fund)	미국 기술주	금리 박스권 등락 가운데 이익률이 높은 기술주 종목들이 부각될 수 있을 것
주식형	SPYD (SPDR Portfolio S&P 500 High Dividend ETF)	미국 배당주	최근 등락하는 금리가 유발하는 변동성 국면에서 안정적인 배당 확보가 가능
주식형	SPLV (Invesco S&P 500 Low Volatility ETF)	미국 저변동성주	긴축 경계 가운데 코로나 재확산 우려에 포트폴리오의 배타를 낮출 필요성 존재
주식형	QUAL (Shares MSCI USA Quality Factor ETF)	미국 질리티 주식	펀드멘탈에 의한 수익률 차별화가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